

전주천변과 전주인의 삶

홍성덕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1. 전 주 천

전주천의 원류는 전주의 동남쪽 완주.임실 두 군의 경계를 나누는 분수령인 슬치의 북동 기슭, 완주군 상관면 표고 약 230m의 지점에서 시작하며, 폭은 약 10m에 달한다. 점차 천의 폭과 함께 계곡의 폭이 넓어지면서 북서로 흐른다. 남관의 동쪽을 지나 신리에서 우측 지류인 대흥천과 만나고, 전주시에는 남동쪽 경계에 들어와 한벽당 부근에서 서쪽으로 휘돌아 남천(南川)이 되었고, 왼쪽에서 들어온 반곡천, 남고천과 합한 뒤, 전주교, 매곡교를 지나 서천(西川)이 되었다. 오른쪽으로 돌아 다가산록을 끼고 진로를 북서쪽으로 잡고 진북사에 도달한다. 다시 덕진동의 남쪽에 이르러 서쪽으로 향하여 팔복동 추천대교 서쪽에서 모악산의 동쪽 기슭을 거쳐 북쪽으로 흐르는 삼천(三川)과 합류하여 추천(湫川)이 된다. 추천은 진로를 북동쪽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서쪽으로 휘돌아 동쪽에 광활한 평야를 두르고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소양천과 고산천의 두 하천과 합류하여 만경강으로 흘러 서해로 향한다.

2. 하상(河床)의 변천

옛 하천의 줄기는 한벽당 아래로부터 이목대.오목대의 아래를 둘러 지금 기린로와 대략 같이 흘러 곧바로 덕진연못을 거쳐 추천으로 흘러 내려간 시대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39년 한발 때에 덕진연못의 북서쪽 모퉁이 연못 아래를 지하 10척 정도를 뚫을 때 암반이 나타났는데 그 사이 많은 냇들을 파올렸던 사실이 있었다. 이후 덕진연못은 전주천이 서천(西遷) 후에 전주 건방(乾方)의 공허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아 올려 부근의 물을 담아 관개(灌溉)하면서 유람도 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덕진연못과 전군도로와의 사이에 있는 밭은 지하 1미터만 파더라도 하천의 모래 층이 나타난

다.

3. 전주천의 서천(西遷)과 시가지의 이동

『완산지』에 의하면 옛날 전주를 다스리던 곳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있었는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쪽을 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천이 옛날에는 오목대 아래로 흘렀는데 민가를 파보면 왕왕 모두 냇물이 나오니 옛날에 물이 흐르던 곳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견훤산성에서 기린봉를 거쳐 문화춘이라 불리는 옛 인봉리를 지나 서노송동 구형무소 자리에 이른 능선 자락 현재 진북동 우성아파트를 있는 능선에 견훤의 고성(古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고려때 조선시대와 같은 지역에 성이 수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주천의 하상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은 고려이전의 일로 추정된다. 즉, 려말선초 경에는 옛날 선창가(商埠地)가 시가의 주요부가 되고 낮은 지대가 발달하여 돌 성벽이 쌓여지면서 치소의 방향이 남향으로 바뀌기에 이른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흥미 깊은 이야기도 있다. 전주시가의 가택은 옛날 동으로 산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였는데, 그 당시의 전주는 재물은 풍부하지 못하였지만 좋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남향으로 세운 뒤부터는 반대로 바뀌어 재물은 풍부하데 좋은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남향함에 따라 북쪽이 허하게 되어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가 전주부성의 기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건방(乾方, 북쪽)을 막기 위해 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KBS 산 사이에 잡림지를 설치했다고 한다.

4. 전주천의 홍수와 제방공사

『호남읍지』에 의하면 1509년 6,000척에 달하는 제방을 수축했다고 하며, 1731년에는 전주부윤 이수항이 승군을 동원하여 수축하였으며, 1784년에는 관찰사 조시위가 대규모로 제방을 수축하였다. 1901년 관찰사 조한국이 개축을 실시하였다. 수차례의 제방 공사가 있었지만 일본에 강점된 즈음 전주 사진을 보면 제방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1920년 대홍수로 13명이 사망하고 546채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이후 1932년 완산교에서 상류쪽으로 339M의 제방을 준공하였고, 1933년에는 전주교 하류 좌우 제방 576M를 시공하여 쌓았다. 이듬해 400M

를 확장하였고 1936년까지 668M를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936년 대홍수를 만나 쌓아놓은 제방마저 대부분 유실되었다. 1936년 대홍수 때는 4시간 동안 무려 188mm를 퍼붓는 강우로 인해 전주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리도 무너져 버렸다. 1937년 총 32만2천8백여원을 들여 좌우 제방 총연장 8400M를 축조하였으며 다가고 아래에는 보트장을 시설하기도 했다. 이때 쌓은 제방은 폭을 90M로 넓히고 높이 역시 1M를 올려 하상과 6M의 높이로 축조되었다.

5. 전주천의 뱃놀이

전주천에도 과거 배를 띄우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구 전주극장 서쪽 모퉁이에 옛날에 대공손수(大公孫樹)라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배를 매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주에서도 뱃놀이를 했다는 것은 그리 과장된 사실만은 아니다.

영조조 관찰사 홍낙인의 패서문루기(沛西門樓記)를 보면

“성의 문루에 올라 내다보면 -중략-배와 달구지가 서로 함께 나란히 미치는 곳 (今從門樓而望焉 山之高也 水之深也 稼穡之豐歉也 謠俗之美惡也 冠蓋之所相接也 舟車之並臻也)”

이라 하여 서문 밖의 풍경에 뱃놀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서문 밖 기전여자대학과 어은골 사이의 마을 명칭이 배마을(舟洞)인 것으로 미루어도, 전주천에 떠 있는 배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편, 오목대 북서쪽 모퉁이의 벼랑에 급격한 경사면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 벼랑 밑에 배를 대고 언덕길의 계단을 밟고 오목대에 오른 유적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곳 우묵한 곳의 흩더미를 들추면 많은 기와편이 나타난다고 한다..

6. 전주천의 지류(支流)

◎ 대흥천(大興川) : 전주천 상류 상관면 신리에서 전주천의 오른쪽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하천. 지류 중에서 가장 크다. 전주 상수도의 수원지로 이용되는 귀중한 하천이다. 상류는 동쪽으로 대흥천, 서쪽으로 부흥천으로 나뉜다.

- ◎ 반석천(盤石川) : 원류는 남고산 고성벽 안으로 남서 모퉁이 깊은 산림 속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흘러 서문을 지나 진로를 북동으로 바꾸어 전주교육대학교의 동쪽에서 서학동으로 나와 남원방면 도로를 지나 한벽당 맞은 편에서 전주천으로 유입한다.
- ◎ 남고천(南固川) : 전주시의 남동쪽 구이면 평촌리를 통해 보광사의 동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남고산의 서쪽을 기고 돌아 미륵암의 뒷산 아래, 보광사 앞을 거쳐 순창방면 도로를 가로질러 서학동의 북쪽을 꿰뚫고 흘러서 곤지산 자락에서 전주교 북쪽에서 초록바위에서 전주천에 합류한다.
- ◎ 사천(沙川;모래내) : 기린봉 북쪽 기슭 무채제(舞彩提)에서 시작하여 인후동을 거쳐 전주 동쪽 산을 타고 북쪽으로 흘러 진안방면 도로를 가로질러 구전주형무소에서 전주의 북쪽으로 향하여 금암동 현 고속터미널 북동쪽에서 전주천에 합류한다.
- ◎ 관선교천(觀善橋川) : 견훤산성 내 옛 성황사터에서 시작하여 서북쪽으로 흘러 리베라호텔 동쪽으로 옛날 철길을 가로질러 시청앞을 거쳐 옛 한진고속 부근에서 모래내와 합류한다.

7. 온고을 속의 연못

호남은 제일의 미곡산지지만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곳곳에 제언(연못)을 만들어 용수를 가뒀었는데, 과거 전주부에는 크고 작은 제언이 56개소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전주에는 인봉지, 덕진지를 비롯 4~5개의 제언이 남아 있다.

- ◎ 인봉지(麟峯池) : 언제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덕진지와 마찬가지로 전주의 허한 북동쪽을 막기 위해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고종대에 전라도관찰사 김성근이 전주의 북쪽에 있는 발의 한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 연못을 수축하고 연못 가운데에 1칸6각의 정자를 지어 일육정이라 하고 연못에 배를 띄워 축연하였다고 한다.
- ◎ 현무지(玄武池) : 옛 전주부성의 북동 모퉁이 현 전라북도2청사 부근으로 추정된다. 호남읍지에 의하면 조선 정조대에 판관 윤광수가 전주의 기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진북정의 북쪽 백보되는 곳에 둘래 338척의 연못

을 파 북방수호신의 이름인 현무를 따서 현무지라 하였다고 한다.

- ◎ 무채제(舞彩提) : 기린봉 북서쪽에서 발원한 물이 옛 성황사 밑을 지나 인후동 옛 진안방면 도로의 남쪽에 위치한 넓이는 2,740평의 무채제에 도달한 뒤, 모래내(沙川)를 흘러 전주천으로 합류한다.

이외에 초제(草提 ; 둘레 607척), 영사제(靈槎提 ; 둘레 893척), 백동제(栢桐提 ; 둘레 1000척) 등이 있었다고 한다.

8. 전주천의 옛 다리과 시장

- ◎ 남천교(南川橋) : 현 전주교 상류 170미터 지점 강암서예관을 못미친 자리에 위치하였다. 원래 돌다리(石橋)였던 이 다리는 1753년 유실되었다가 정조대인 1790년 김응록, 박사덕 등이 복구사업을 시작 1만 4천냥의 돈을 모아 1791년 8월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완공하였다. 이때 다시 만든 다리 모양을 보고 안경다리(眼鏡橋), 오룡교(五龍橋)라고도 불렀다. 다섯 개의 창을 가진 무지개 모양의 다리였으며 각 창 머리에는 용머리를 새겨 놓았는데 승암산이 화기(火氣)을 머금은 형세여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다시 무너진 1901년 관찰사 조한국이 평교(平橋)로 개축하였으나 1907년 수해를 입어 부서지자 같은 해 백남선의 후원으로 재수축하였으나 3년후 홍수로 유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 ◎ 서천교(西川橋) : 원래는 흙다리(土橋)였으나 순조대 관찰사 한용구, 조인영, 이규현 등의 노력과 성내 백성들의 성금을 모아 1833년 돌다리(石橋)를 놓았다. 탄탄하기란 마치 땅바닥을 딛는 것 같았으며 놓여진 돌들의 모습은 고기비늘처럼 눈부셨다고 한다. 그러나 이 다리는 그후 홍수로 붕괴되었으며 1845년에 전주부성 사람들을 동원 개축하였다. 1896년에는 승지 김창석이 사재를 털어 개축했으나 오래되지 않아 무너졌다. 그후 1931년 박기순이 서천교 다리돌을 옮겨 완산에 청학루(靑鶴樓, 옛 국악원)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그 대신 목교(木橋)를 현 서천교가 있던 자리에 놓았으나 1936년 대홍수 때에 유실되었다.

- ◎ 싸전다리(米塵橋) : 지금의 전주교 자리에 있던 다리로 나무다리(木橋)였다. 옛날에 이 다리목을 끼고 좌우에 싸전(쌀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사람들이 사탕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이후 1922년 전주교가 건립되었는데 전북 최초의 콘크리트 시공이었다. 이 전주교는 1936년 대홍수 때에도 유실되지 않은 유일한 다리였다.

- ◎ 설대전다리(煙竹橋) : 현 남부시장에서 완산칠봉으로 들어가는 매곡교 자리이다. 옛날에 이 다리 아래 쪽 서천교 사이로 담뱃대(煙竹, 설대) 장사들이 좌전(坐塵)을 벌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이 다리 밑은 우시장이 열려 쇠전강변이라고도 했다.
- ◎ 소금전다리(鹽塵橋) : 현 완산교에 놓였던 다리이다. 옛날 소금가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922년 전주교와 함께 콘크리트로 완산교가 놓여져 용머리고개를 넘어 정읍방면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36년 대홍수 때에 유실되었으나 그 이듬해 다시 완공하였다.
- ◎ 사마교(司馬橋) : 현 다가교 위쪽에 놓였던 다리. 옛날에는 이 다리를 건너 다가정, 사직단, 향교의 사마제 등이 있었으며 고개를 넘으면 화산서원(華山書院)이 있었다.

9. 전주천변의 역사문화유적

- ◎ 한벽당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5호로 승암산 기슭 발산 머리의 절벽에 위치한 누각으로 전주 8경 중 한벽청연(寒碧晴煙)으로 꼽히는 곳이다. 한벽당이라 불리게 된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월당 최담선생유히비에는 월당루(月塘樓)라 하였다. 한벽당이라는 이름은 벽옥한류(碧玉寒流)란 글귀에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
- ◎ 남천교개건비 : 현재 전주교대 박물관 앞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 비는 남천교 개건 경위와 그 비용을 기록한 것으로 1794년에 세웠으나 1862년 3만을 깎아내고 비문을 새로 새겨 넣었다. 기금을 모으는 내역과 공사에 동원된 인원수와 지역 그리고 기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 등이 새겨져 있다.
- ◎ 초록바위 : 곤지산 아래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산세가 갈마음수격(渴馬飲水格)으로 말이 풀발을 찾는 다는 의미에서 초록바위라 했다고 한다. 1936년 홍수 뒤 호안공사를 하면서 상당부분 깎졌다. 이 바위 틈새에는 몇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는데 참형자들을 효수하던 나무들이라 하여 숲정이, 좁은목과 함께 삼대바람통이라 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개남을 처형한 곳이기도 하

며 천주교 신자를 처형해 메달아 놓은 곳이기도 하다. 독이 쌓여지기 전에는 남고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반석천의 물이 부딪치는 곳으로 홍수 때는 남문밖 장터를 정면으로 흘러 전주 성안으로 밀려들었다고 한다.

- ◎ 서천교창건비 : 현 서천교 서쪽편에 위치해 있으면 1847년에 세웠다. 서천교의 건립과정과 모금한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건립을 위한 자금의 마련과정이 전면에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는 기금을 조성한 사람들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 ◎ 천양정(穿揚亭) : 천양이란 버들잎을 화살로 꿰뚫는다는 뜻으로 조선 숙종 38년(1712)에 건립되었으나 세운지 9년 만에 홍수로 유실되었다. 이후 1722년 다가정(多佳亭)이 세워졌고, 1830년(순조 30) 다시 천양정이 세워졌다. 다가정은 북쪽에 후가 있어 바람을 맞고 쏘아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했으며 천양정은 서쪽에 후가 있어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였다. 전주에는 세 군데 사정이 있었는데 용머리고개의 군자정, 다가산의 천양정, 서서학동의 읍양정 등이었다. 이 세 사정은 1912년 통합되어 전주천양정사정회로 바뀌었다.
- ◎ 사직단(社稷壇) : 사(社)는 지신을 말하며, 직(稷)은 곡물신을 말한다. 사직단은 지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현 신흥학교 교사 부지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춘추의 두 번의 정례적인 제향이 있었으며 전주부사가 제주가 되어 향사하였다. 사직제는 경기전, 성황사, 여단의 제사와 함께 부성의 중요한 제례로 행해졌다.
- ◎ 회현당 사적비(希顯堂 事蹟碑) : 신흥학교 뒤 황학대 기슭에 묻혀 있던 것을 다시 신흥학교 교정에 세웠다. 회현당은 1701년(숙종 27) 관찰사 김시걸이 옛 사마재가 있던 터에 건립한 것으로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希)자와 입신양명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현(顯)자를 취하였다. 이 비는 김시걸의 업적을 기록한 것으로 1707년에 세워졌다.
- ◎ 회현당 중수 사적비 : 비문에 의하면 1715년 관찰사 이집이 중수하려다 교체되어 이루지 못하였다가 그 아들 이주진이 1738년 관찰사로 부임해 와서 건물을 넓히는 한편 학생 선발 등 학칙 40여조목을 마련하였다. 이 중수 사적비는 1743년 세워졌다.
- ◎ 진북사(鎭北寺) : 북고사(北固寺)라고도 한다. 창건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전라도관찰사 이서구가 터를 잡았다는 산신각이 있으며 최근 중창하였다.

- ◎ 추천대(湫川臺) : 조선 성종 때 대사헌을 지낸 추천(湫灘) 이경동이 전주 마전(馬田)에 낙향하여 추천에 뉘시를 드리우고 유유자적하며 만년을 보낸 곳으로 1947년 후손들이 그 자리에 흙을 쌓고 정자를 세웠다.
- ◎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천 : 1894년 4월 27일 서문밖 장날 동학군들이 장꾼들과 함께 시장 속에 들어와 있다가 용머리고개에서 대포 소리가 터져 나오며 일시 서문과 남문을 통해 전주성으로 들어갔다. 이어 관군을 이끈 홍계훈의 경군과 농민군은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주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다. 이를 완산전투라 한다.
- ◎ 전주신사(全州神社) :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본은 전주에도 어김없이 다가산 정상에 목조의 도리를 세우고 요배소라 하여 참배를 강요하였다. 1913년 전주신사 및 공원건설위원회를 만들어 전주신사 건립에 착수하여 1914년 11월 24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다리밟기(踏橋)

정월 대보름 달맞이 밤은 / 웃넉 아랫넉 다리마다 동이나네

부령, 청진정어리 파실런가 / 칠산, 연평조기 파실런가

구슬뿔듯 물고 밀리어 길목마다 묻히네

정월대보름 기린봉 봉우리에 보름달이 떠오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천교와 서천교로 몰려들어 다리밟기를 하였다. 자기 나이만큼 밟으면 한평생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옛 풍속 때문이다. 기린봉에 보름달이 솟아오르고, 곤지봉.투구봉에선 ‘만월이야’를 외치는 소리, 남천 서천교에선 햇불의 행렬, 사람들은 일제히 둥근달을 바라보며 다리밟기를 시작한다. 물론 자기의 나이만큼 밟는다. 또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의 1년간의 평안함도 함께 빌어주기도 한다. 처녀 총각들은 각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뒤통까지도 밟아준다.

돌싸움(石戰)

남천과 서천으로 갈라 강변을 끼고 싸전다리를 경계로 동남진이 학봉리패, 사정말패, 남문거리패, 반석리패, 향교골패, 공수내패이고, 서북진이 서문거리패, 곤지리패, 은송리패, 빙고등패, 군자정패, 용머리골패였다. 쌍방 패거리들은 각기 1백명씩 10대-20대-30대 순으로 승부를 겨루며 행동권은 동남진이 남천교에서 싸전다리까지의 선이고, 서북진이 서천교에서 싸전다리까지의 선이다. 고함소리와 비명소리, 남천과 서천에서는 온통 소름 끼치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다 달이 중천에 오르면 그친다.

참고문헌 : 전주부사(1942), 전주야사(1967), 전북백년(1976), 완산고을의 맥박(1994), 전주시사 (1997) 참조

